
[일본] 코로나 위기 속 여행업계, 보장 강화한 “여행취소보험 & 항공지연보험”으로 대응

- (개요) (주)야후 재팬과 일본 대형 손보사 (주)손보재팬의 소액단기보험 자회사인 (주)Mysurance는 제휴를 통해, 여행 취소 시 수수료를 보상하는 “여행취소보험”과 항공편 지연/결항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“항공지연보험”을 출시
 - 여행취소보험은 기존 보험의 지급사유에는 없었던 “기타 우연한 사고”를 추가하여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했으며,
 - 항공지연보험의 경우, 기존에는 여행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했으나 단독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(업계 최초)

※ (주)Mysurance 회사 정보

- 2019.3월에 (주)손보재팬의 자회사로 설립.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/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로,
- 대형 IT기업 LINE 및 야후 등과의 제휴를 통한 LINE보험/야후 보험을 제공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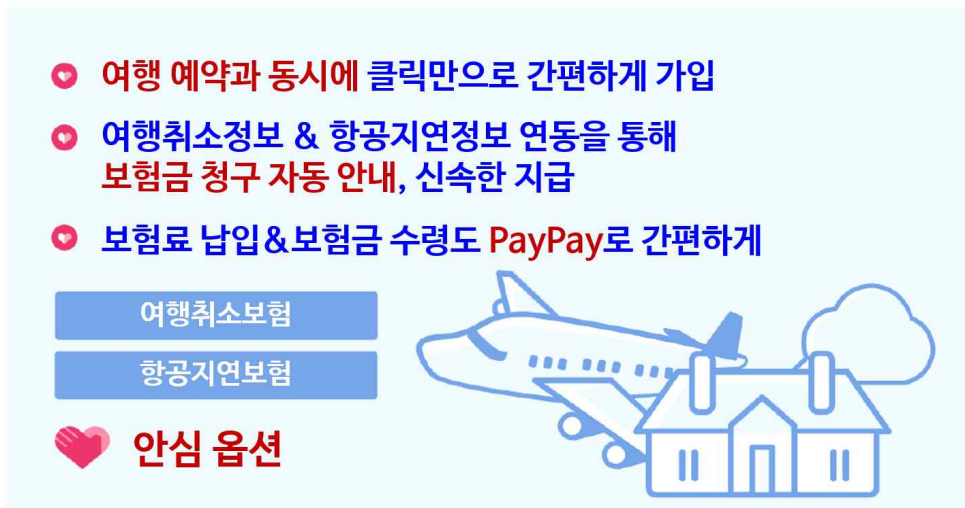
- (개발 배경)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여행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, 여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인 취소리스크와 항공기 지연/결항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
 - 여행 계획 시 이용자들이 느끼는 주요 불안 요소는 취소수수료와 항공편 지연/결항에 따른 비용 부담 등,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손해
 - 본인/동행자의 입원/통원이나 급한 업무 발생,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,
 - 항공편이 지연/결항되었을 경우에도, 식대나 숙박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

- 특히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‘긴급사태선언’*이나 ‘외출 자제 요청’ 발령에 따라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왔으며, 이같은 리스크는 향후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

* 2020.4.1.~8, 2021.1.11.~2.7, 일본 정부, 긴급사태 선언 발령

⇒ 이에 손보재팬은 야후 트래블과의 제휴를 통해 보장을 한층 강화한 “여행 취소보험”과 항공지연보험“을 개발하여,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행 수요의 재창출에 나섬

[그림1] 안심옵션(여행취소보험&항공지연보험) 상품 이미지



* 출처: 손보재팬(2020.12.16.), 「야후 트래블/손보재팬, 여행취소보험/항공지연보험 출시」

1. 여행취소보험

■ 가입조건

- 여행 예약사이트 ‘야후 트래블’에서 ‘야후 호텔 Package’(국내 숙박+항공권)를 예약한 15세 이상
- 여행 개시일까지 9일 이상 남았을 것(보험 가입일 포함)
- 예약인원수가 6명 이하일 것

■ 보장내용

- 지급사유: 예약한 여행을 취소 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를 보상
 - 지급보험금(한도: 여행대금 총액) = 취소수수료 X 취소사유에 따른 보상비율
 - 기존의 여행취소보험에서는 사전에 지정된 취소사유만 보상했으나, 이번에 출시된 보험에서는 지정된 사유 이외의 취소도 ‘기타 우연한 사유(※)’로 취급하여 보험금을 지급함
 - 특히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이나 외출자제요청으로 인한 취소도 보상 대상
- ※ 단, 기상 등 우연한 사유에 기인하지 않고, 단순 변심으로 여행 의사가 없어진 경우나, 같은 일정으로 여러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일부를 임의 취소하는 경우 등은 보상대상 외

[표1] 취소사유별 보상비율

보상비율	100%	50%	30%
취소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/동행자의 입원/통원/사망 (여행일 7일 이내의 입원 여행일 전일/당일의 통원) - 대중교통의 2시간 이상 지연 -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의한 숙박을 동반한 출장 및 휴일근무 - 기상청의 특별 경보 - 자택의 화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행출발 당일/전일의 제3자의 장례식 조문 - 여행출발 당일/전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- 임신 - 여행개시일 3일 이전의 펫의 사망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우연한 사유 (긴급사태선언 발령 외출자제요청 발령 숙박시설/자택요양)

* 출처: 손보재팬(2020.12.16.), 「야후 트래블/손보재팬, 여행취소보험/항공지연보험 출시」

■ 보험료 예시

- 여행자 2명, 100,000엔 짜리 2박 3일 여행상품 예약 시
 - 보험금액(지급한도) 100,000엔 보험료 2,460엔

■ 가입 절차

- 여행 예약 화면에서 동시에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(예약 후 가입은 불가)
 - 야후 트래블 사이트에서 예약 시 정보 입력 화면에서 '가입' 항목 체크
 - 예약자 생년월일 입력
 - 보험료 납입방법 선택: 간편 결제(PayPay) 또는 신용카드

[그림2] 안심옵션(여행취소보험&항공지연보험) 가입화면



* 출처: 손보재팬(2020.12.16.), 「야후 트래블/손보재팬, 여행취소보험/항공지연보험 출시」

■ 보험금 청구 절차

- 여행 예약 취소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안내
 - 여행 예약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, 자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안내되며 신속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. 보험금액은 취소사유별 보상비율에 따라 결정됨
 - PayPay 입금 또는 은행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

2. 항공지연보험

■ 가입조건(여행취소보험과 동일)

- 여행 예약사이트 '야후 트래블'에서 '야후 호텔 Package'(국내 숙박+항공권)를 예약한 15세 이상
- 여행 개시일까지 9일 이상 남았을 것(보험 가입일 포함)
- 예약인원수가 6명 이하일 것

■ 보장내용

- 지급사유: 항공기 출발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지연/결항이 확정/공지되고,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

[표2] 항공지연보험 지급보험금

운영상황	2시간 이상 지연	4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
보험금액	3,000엔 (항공권 편도 1매당)	10,000엔 (항공권 편도 1매당)

* 출처: 손보재팬(2020.12.16.), 「야후 트래블/손보재팬, 여행취소보험/항공지연보험 출시」

- 기존의 항공지연보상은 여행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했었으며 최소 4시간 이상의 지연/결항에 대해 보상했으나, 본 상품은 2시간 이상 지연도 보상하며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

※ 단, 지연/결항이 발생했어도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없었다면 보상 불가

■ 보험료 예시

- 여행자 2명, 100,000엔 짜리 2박 3일 여행상품 예약 시
 - 보험금액(지급한도) 40,000엔 / 보험료 1,600엔

■ 가입 절차(여행취소보험과 동일)

- 여행 예약 화면에서 동시에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(예약 후 가입은 불가)
 - 야후 트래블 사이트에서 예약 시 정보 입력 화면에서 ‘가입’ 항목 체크
 - 예약자 생년월일 입력
 - 보험료 납입방법 선택: 간편 결제(PayPay) 또는 신용카드

[그림3] 여행취소보험 특징

	예기치 못한 이유로 여행 취소 시 수수료 보상
	취소수수료 최대 100% 지급
	간편결제 PayPay로 보험금 지급

[그림4] 항공지연보험 특징

	항공편 지연/결항시 보험금 지급
	보험금 최대 10,000엔
	간편결제 PayPay로 보험금 즉시 지급

* 출처: 손보재팬(2020.12.16.), 「야후 트래블/손보재팬, 여행취소보험/항공지연보험 출시」